

가족들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되길...

KCRP 종교 지도자
단식 중 유가족 격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1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단식장을 찾아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를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들을 격려했다. 또 가족들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서정기 유교 성균관장, 정인성 원불교 교무 등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단식장을 찾아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를 격려했다. 세월호 희생자 단원과 2학년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월14일 단식에 돌입해 39일째 단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유민이 아버님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다. 40일 가까이 이어진 단식이 힘들 텐데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가족들이 바라는 바대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기 성균관장은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단식이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 아파한다. 우리들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영주 목사는 "종교인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 우리가 힘을 합쳐 (가족들의) 뜻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을 잘 추스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방문과 관련해 김영오 씨는 "(종교인들께서)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는 단식 40일째인 지난 22일 오전 몸상태가 악화돼 서울시립동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도봉서원터서 국보급
고려 공양구 대거 출토 3면

‘호국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만들자

종단 불교사회연구소
27일 제정추진위 발족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스님들을 기리기 위한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조계종과 불교사회연구소는 오는 27일 오전1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

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호국의승의날 제정 논의는 지난해 열린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본격화됐다. 이후 총무원은 지난 6월25일 호국의승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 역시 호국의승의 날 제정 사업을 종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발족식은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을 본격화하는

자리로, 총무원장 스님의 발족기념사,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제정 취지 설명, 내외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발족식에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감사 등 호국사찰 주지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국회 정각소속 의원, 전문연구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을 계기로 추진위는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회 청원 등을 통해 국가기념일 제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명품관

사찰음식 레스토랑·홍보관 운영

불교문화사업단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현장에서 한국의 사찰음식을 만날 수 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사찰음식 레스토랑을 개설해 음식을 판매하는 한편 홍보관도 운영한다.

사찰음식 레스토랑 '그린 위즈덤 오브 발우공양(Green Wisdom of

Baru Gongyang)'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명품음식관에 들어선다. 명품음식관은 아시아 10개국 유명 셰프와 국내 레스토랑 6곳 등으로 구성돼 아시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업단은 콩까스, 뽕잎 비빔국수, 버섯칠보채덮밥, 연잎밥 등을 판매하는 한편 홍보관도 운영한다.

사찰음식 홍보관에서는 사찰음식 원형과 소박한 밥상, 발우공양 등을

전시하고, 사찰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스님을 초청해 참가자들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연도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즐겁게(笑) 먹고 적게(小) 먹고 채식(蔬)을 하자는 의미의 3소식 캠페인도 전개한다.

사업단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국내외 선수나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사찰음식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 영화 '명량' 통해 본 임진왜란과 의승군 ① 거북선 원형은 연곡사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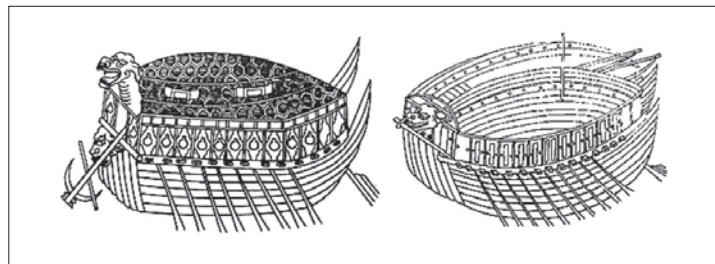
자운대사 설계...승탑비 기부 연기조사 타고 온 '연' 힌트

최근 영화 '명량'이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영화는 임진왜란 당시 붕괴상태에 있던 군세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승군(僧軍)의 활약상도 그리고 있다.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승군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특히 이순신 장군을 도와 전란을 승리로 이끈 의승 수군의 활동과 더불어 전쟁 이후 주요 활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이 각종 흥행기록을 바꾸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거북선의 원형이 사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현장은 지리산 아골에 자리한 연곡사 동 승탑비와 화엄사 금강문 옆에 있는 벽암대사 탐비를 받치고 있는 귀부(龜趺)이다.

연곡사 승탑비 귀부는, 몸통은 거북이인데 등에 귀갑문양과 함께 새의 날개가 달려있어 흥미로운 모습을 띤다. 화엄사와 연곡사 창건설화에 의하면 창건주 연기조사가 인도에서 '연'을 타고 지리산에 와서 <화엄경>을 설했다고 한다. 이때 연기조사가 타고 온 연은 육지와 바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로, 용의 머리에 몸통은 날개가 있는 거북이며 오늘의 연곡사 승탑비 귀부와 같은 것이다. 이 귀부가 거북선의 원형이라는 이야기는 임란 당시 의승 수군이 활동했던 지리산 화엄사와 여수 흥국사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 온다.

임란 당시 총무공 옆에는 항상 자운스님이 부장으로서 활약하며 함께 싸움에 임했다. 하루는 자운스님이 '연기조사가 타고 온 연을 바다에 띄우면 일본 수군이 쉽게 물러갈 것'으로 생각했다. 본래 일본은 해양국가로 바닷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용을 상서롭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운스님은 조선 수군의 배를 용의 형상으로 만들면 일



보물 제153호 연곡사 동 승탑비. 위 사진은 전라좌수영 거북선(왼쪽)과 통제영 거북선.

조선 수군의 배
용 형상으로 만들면
일본군 사기 떨어지고
도망갈 것으로 여겨
총무공에게 제안

본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싸우기보다 도망갈 것으로 여겨 총무공에게 거북선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스님(흥국사 주지)은 "스님들이 거북선 설계에 직접 참여한 자료가 일본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학자들과 함께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거북선은 조선 태종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귀선(龜船)으로 불리던 거북선은 시대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일반적으로 임란 당시 해전에서 활약했던 거북선은 나주출신 나대용 장군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거북선의 형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총무공 대신 원군이 지휘하던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패

하면서 거북선도 모두 침몰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라좌수영 소속 거북선과 경상우수영의 거북선은 용머리가 약간 달랐다고 한다. 전라좌수영 거북선이 좀 더 불교의 호법적 의미가 있었다고 전한다. 자운스님이 활약한 여수 흥국사는 전라좌수영 지역으로 스님이 거북선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신빙성을 더해준다.

근래 들어 영화 '명량'의 효과인지 연곡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입소문으로 돌린 거북선의 원형인 동 승탑비 귀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연곡사 주지 원묵스님은 "지역에 전하는 설화와 기록을 정리해 자운대사와 거북선을 고증해야한다"며 "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의승 수군의 활동이 재조명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곡사는 신라 진평왕 6년(545년) 연기조사가 창건했으며 경내에 거북선의 원형인 동 승탑비(보물 제153호)를 비롯하여 동 승탑(국보 제53호), 북 승탑(국보 제54호), 소요대사탑(보물 제154호), 3층석탑(보물 제151호), 현각선사탑비(보물 제152호) 등 국보 2점 보물 4점 등 많은 성보문화재가 남아있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시장
msha0703@bulgyo.com

2014 가을 관광주간과 함께합니다

다시 시작 합니다 희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4인 이하 가족 중
초·중·고 자녀는
참가비 무료

템플스테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희망을 말해요"

희망을 만드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 대상 | 전 국민 가족단위 참가자 자녀 무료 혜택 제공
(4인 이하 가족 초·중·고 자녀에 한함)
| 장소 |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10곳

| 신청기간 | 2014년 9월 1일(월) ~ 19일(금)

| 체험기간 | 2014년 9월 20일(토) ~ 10월 5일(일)

※ 신청 기간 내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에서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